

극영화·다큐·공연실황...문화전당서 무료로 본다

ACC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 시네마' 주 8회 상영

아시아영화·고전영화 등 다양

조성진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도

홈페이지 통해 사전 예약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안노 히데아키의 '에반게리온: 서',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 레니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 모리스 베자르의 발레 '베토벤 교향곡 9번 협주'.

극영화, 다큐,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영상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 자리한 'ACC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능을 통합한 공간이다. 이곳에 가면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아시아의 필름&비디오' 등 13개 주제로 분류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전당이 라이브러리 파크 블랙박스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블랙박스 시네마'를 시작한다. '아시아의 필름&비디오' 섹션에 수집된 콘텐츠를 활용해 차별화된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문 영화관으로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 계획이다.

3월 4일부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6일(8회 상영)간 상영되는 프로그램은 요일마다 다양한 기획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영화(화), 다큐멘터리·공연실황(수), 실험영화(목), 고전영화(금), 가족영화(토), 현대영화(일) 등이다. 또 매일 마지막 주는 특정 주제를 정해 관련 영화를 집중 상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재 3·4월 상영표가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아시아 영화'에서는 '오발탄', '동경이야기', '에반게리온: 서',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다'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다

요일별 프로그램

- 화 - 아시아 영화
- 수 - 다큐멘터리·공연실황
- 목 - 실험영화
- 금 - 고전영화
- 토 - 가족영화
- 일 - 현대영화

큐·공연' 섹션에서는 '피나 바우쉬의 카페 물리', 글렌 굴드 '골드베르크 변주곡', 조성진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 로얄발레단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칼벨리 지휘한 모차르트의 '레퀴엠' 등이 상영된다.

또 고전영화와 실험영화 섹션에서는 '현기증', '의지의 승리', '달세계 여행'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가족영화 코너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위손',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이 상영된다.

3월의 특별 주제는 '사이보그 망명'으로 기술문명과 인간을 둘러싼 이슈를 다룬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메트로폴리스', '에반게리온', '블레이드 러너', '솔라리스' 등이다.

4월에는 '멋진 신세계'라는 주제로 역사, 지역적 문제를 이방인적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북녘에서 온 노래', '태양앞이', '북극의 나루크', '머나먼 베트남')를 상영한다. 5월은 가족의 달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영화는 화·목·금요일은 1회 (오후 2시 30분), 수요일(오후 2시 30분·오후 5시)과 주말인 토·일요일(오전 11시·오후 3시)은 각각 2회씩 상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운드 오브 뮤직'



'키드'

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 '사물의 날' 특별 무대

25일 남도소리울림터

'신명난 사물놀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라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25일 오후 5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사물의 날' 특별 무대를 갖는다.

오고무와 대고의 울림을 웅장하게 표현한 '천년의 북소리'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신명나고 역동적인 춤사위 가락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진도 북놀이', 기악 실내악 '적남', 앉은반 설장구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판소리 '사랑가'에 이어, 국악가요 '가시버시 사랑, 배 띄워라'의 공연도 이어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6세에서 초등학생

으로 구성된 아리솔 어린이국악단(사진) 무대가 눈에 띈다. 2016년 여름에 창단된 아리솔 어린이국악단은 오는 8월 영국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거리축제에 참가하는 팀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사물놀이 선반'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연희마당놀이 '호남 우도농악'의 무대는 관객과 연희자들이 하나 되는 어울림 한마당이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는 대동 한마당과 포토 타임 등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티켓 가격 성인 1만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 무료.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즈와 국악 콜라보레이션 공연

25일 전통문화관

강윤숙과 재즈 여행

무등산 자락의 전통문화관에서 재즈와 국악의 매력적인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강윤숙의 재즈 여행(대표 강윤숙)을 초청해 '재즈와 국악의 어울림' 공연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해금의 아름다운 소리와 재즈 선율의 조화가 돋보이는 기악연주곡 '어느날'이 장식하며 다양한 국악퓨전작곡 '어울림'과 '밀양아리랑'이 이어진다.

또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신세대의 감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난감하네'를 기악곡으로 연주하며 '아리랑'을 색소폰 연주로 함께한다.

그밖에 판소리 '춘향가'를 재즈선율과 어울리는 곡으로 재구성한 퓨전 국악 '이몽룡야', 김소월 시 김광수 작곡의 '엄마야 누나야'를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과 엮어 재편곡한 '엄마야 누나야 & My favorite things'를 선보인다. 출연진은 강윤숙, 김성광, 김민호, 이대인, 권운, 이가영, 김단비, 윤사람, 김현우, 윤종성 씨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웃음·풍자·교훈...김점선 동화집 '거꾸로 교실' 펴내

광주 출신 김점선 동화작가가 아이들의 일상을 유쾌하고 독특하게 되짚어보는 첫 작품집 '거꾸로 교실'(청개구리)을 펴냈다.

신춘문에 당선 작품 등 모두 여섯 편이 수록된 창작집에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영향으로 아이들의 일상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돼 있다.

여섯 편의 단편동화는 웃음과 교훈이라는 동화의 본질적인 기능 외에도 풍자와 웃음이라는 재미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작품에 투영된 메시지는 학교 현장의 아이들의 모습과 생각을 담아내는 데 손색이 없다.

마음을 치료하는 약국 놀이를 통해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마음약국 프로젝트', 무작정 교실로 들어온 강아지가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 '29년 다다', 전학 온 할머니를 통해 사회성을 찾아가는 손녀 이야기 '전학생 이필남' 등은 작가의 창작 지향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이와 달리 표제작 '거꾸로 교실'은 '어느날 갑자기 교실이 거꾸로 뒤집었다면 어떻



게 될까'라는 상상이 모티브가 됐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뒤엎어진 교실을 가정한 이야기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선생님과 아이들은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한마디로 기절초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분실물 때문이다. 물자가 풍족하다보니 불건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상화되다가 갑자기 교실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웃음과 풍자, 그

리고 의인화를 덧입혀 사소한 것들의 중요함도 일깨운다.

김 작가는 작가후기에서 "어느날 꿈꾸던 대로 기적처럼 작가가 됐고 단편동화 여섯 개를 묶어 첫 작품집을 내게 되었다"며 "새 학년 첫날 어떤 친구가 내 짝꿍이 될까 기다릴 때처럼 제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전공했다. 201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16년 제9회 '웅진주니어문학상' 동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직 입점 매 13억(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문인의 산실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2017년 수강생모집

2016년 신춘문예 등 6명 등단 |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발돋움'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부설 문예창작대학에서는 2017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로 운영되는 생오지 문예창작대학은 매학기 12강좌를 개설해 실기 위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문단의 중견 작가들 강사로 초빙,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합니다.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널리 알려진 생오지문예창작촌은 2016년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 문학상을 통해 6명의 신인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미경이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장편소설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에서는 2007년 <생오지 문학의집> 개설 이후 2016년까지 모두 35명이 등단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요강

1. 과목 인원 강의시간
 - 시창작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 소설창작반 30명 토요일 오후 2~4시
 - 소설등단반 15명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 기초 글쓰기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2. 강의기간: 1학기 3월 11일 ~ 6월 10일 / 2학기 9월 9일 ~ 12월 9일
3. 등록마감: 3월 5일
4. 등록 및 수강신청
 - 문의전화: 010-2441-4830
 - E-MAIL: jyc910106@naver.com
 - *소설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로 접수, 심사 후 수강신청 가능
5. 개강 및 특강: 3월 11일 (토) 오후 2시
6. 강의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혹은 카페 '생오지문예창작촌'을 클릭하세요

(재) 생오지문예창작촌 부설 문예창작대학